

# 변혁정치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

11월 5일  
2012년 월요일

■발행인 : 김소연 김일섭 이호동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본관 13층 (우)100-702 ■이메일 : revolparty@gmail.com



77일 파업 살인진압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3천명 정리해고에 대해 한마디 사과와 말도 없는 여당,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직법을 제정해 900만 비정규직 고용지옥을 만들어놓고도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양보를 요구하는 야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벌의 친구인 보수야당과 야권연대를 경쟁하고 있는 진보정당들이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희망 한 움큼 보지 못한 채 골방에서 죽어간 내 동료들과 가족들의 죽음의 원인인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하는 후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900만 비정규직의 절망을 양산한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이 일하다 죽어나간 삼성전자의 이근희 회장, 10년 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23명의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정리해고제 폐지 공약은 어디에?

그래서 저는 기다려왔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싸우는 후보, 탐욕의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민중후보, '묻지마 야권연대'가 아니라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대통령을 기다려 왔습니다. 동료들에게 보수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울 노동자대통령을 알릴 수 있기를, 그래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날 투표장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 후보를 찍을 수 있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1월 11일 낮 12시 제가 앉아있는 이곳 대한문에서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는 소식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선택한 학교에서 사학비리에 맞서 싸우기 시작해 생사를 넘나드는 94일 단식농성까지 25년 동안 민주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위해 싸운 노동자, 900만 비정규직의 상징이 된 기륭전자의 여성노동자, 진정한 노동자대통령과 함께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나갑시다.



사진 : JUM.JOMBBAE

제우기가 닥치면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더니, 과거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벌어진 끔찍한 정리해고의 악몽이 떠올라 몸서리쳐집니다.

##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고통

이명박 정권이 저질렀던 쌍용자동차

2012년 11월 2일(금)

단식농성 24일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 드림

##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다린 노동자대통령

대관령이 영하 7도 아래로 떨어지고 서리가 내린 오늘 새벽은 몹시 추웠습니다. 동터울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대한문 천막의 보일러 호스가 터져 잠이 깰습니다. 몇 겹이나 되는 이불을 덮고 있는 저도 이렇게 추운데, 30m 철탑 위에서 칼날 같은 바닷바람을 맞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천희봉, 최병승 동지는 얼마나 추울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노조탄압에 맞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성기업의 홍종인 지회장과, 전기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전국의 수많은 천막들은 또 얼마나 추울까, 제주에서 출발해 그 긴 시간을 걸어 서울에 도착한 생명평화대행진은 또 얼마나 추울까 하는 생각에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곡기를 끊은 지 24일입니다. 이 십일이 넘으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배고프다는 신호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물로 들이키며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 대한문까지 찾아와 함께 밥을 굶으며 차가운 바닥에 앉아계신 동지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보지만, 곡기를 끊는 고통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 대한문에서 철탑에서 거리에서 싸우는 이들

살을 에는 혹한의 추위보다 더 큰 고통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스물 세 명의 노동자가 죽고, 또 누군가가 생명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자본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한 해에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로 잘려나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뼈를 깎는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은 비정규직이라는 절망의 굴레에 갇혀 이름도 없이 노동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절망감입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만든 900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지옥이 더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벌의 탐욕을 위해 아름다운 강이 파괴되고, 가난한 이들의 삶터가 파헤쳐지고, 골목의 작은 상권들이 폐허가 되고, 평화의 섬이 전쟁 기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일터와 삶터에서 쫓겨날 것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10대 재벌 중에서 9개 재벌이 내년에 경



# 쫓겨난 이들의 저항의 목소리

## 정치희망버스가 되기를

내용보다는 야권후보 통합만이 얘기되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를 결의하고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기룡전자 김소연 동지의 어렵고 힘든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선 완주를 통해 대통령선거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안철수의 선거운동 얘기 속에 김소연 동지의 대선 투쟁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줄 거라 믿습니다. 작년 희망버스는 새로운 역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선투쟁도 희망버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역동성이 모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울산과 대한문, 시청, 부산 등 전국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투쟁의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근조 철도노조 구로차량지부장

## 노동자대통령후보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 “대통령선거가 장난이야?”

노동자 대통령후보 제안을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무슨 반장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것은 아마도 이미 내 머릿속에 박근혜는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 위기감 때문에 야권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

### 김대중·노무현에게 속았던 아픈 기억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착각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것이다. 단지 다르리라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을 뿐. 이제는 그 착각에 한 치의 미련도 두지말자.

### 우리의 선택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달라질게 없다면 노동자 후보를 지지하고 결집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향후에 저들이 우릴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 투쟁을 하자. 노동자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 선거투쟁을 외쳐야 한다. 우리의 당당한 노동자 후보를 통해서! 최일배 코오롱정투위 위원장

## 노조탄압 없는 세상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나라!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가 세상! 이모든 것을 비호하는 정부! 갈아 엮자. 노동자서민이 당당하게 설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 지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과 사회적 약자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박헌재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같이 농성하고 희망버스를 탔던 후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면, 오늘도 텔레비전에는 ‘그들’만의 대선놀음이 한창이다. 한때 우리들을 대변하겠다고던 소위 ‘진보’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보수야당의 후보들에게 추파를 던진다. ‘해고는 살인’이라며 곡기를 끊고,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철탑에 올라가야 대선 후보

들이 한번쯤 들려본다. 이런 것이 정치라면, 나는 정치 안 할란다.

그런데 말이다. 투쟁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함께 농성을 하고 희망버스를 탔던 우리들의 동지가 결단을 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표’로 동원되는 기체가 아니라, 당당한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구체적인 현실이 어떤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자. 제대로 된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를 입증해내자. 우리 노동자, 민중이 세상의 주인이었음을 당당하게 선언하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진짜 출발이다!

심인호 동화오도 새내하청지회

##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자본주의를 갈아엎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중들의 삶,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대통령후보와 함께 민중연대투쟁을 열어갑시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 노조 조직률 50% 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해도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조 조직률 50% 되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노태영 KBS 기자

## 우리 아이 비정규직 만들지않을 노동자대통령

대선 후보들이 고용문제 얘기하고 있다. 고용을 보통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이슈 같지만 좋을 일자리가 아니라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이다. 가난한 삶을 비판해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조장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안전하고 정상적인 일터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대충 말하면서 비정규를 양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켜가고 있다. 사실을 정확히 보고 있지 않다. 영망진창인 세상이다. 아이들 키울 때는 귀하게 키우는데 막상 키우면 비전이 없고 알바 하거나 비정규나 되고 만다.

이런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이 노동자대통령 후보가 해야 할 일이다. 변혁모임의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노동자들이 결집을 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많이 호소해서 야당후보 찍기를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신태섭 기아차지부 화성공장

## 배제된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진짜 정치

지금 ‘정치’라는 것이 수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노동자 계급 정치,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노동자 정당을 만들고 노동자 국회의원을 제도 정치권으로 보내는 것이 노동자 정치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야기한 왜곡은 적지 않았다. 노동자의 요구가 제도 정치권 내에서 왜곡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정치’ 자체가 협소해졌다. 그러나 정치는 삶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조응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가 아닌 ‘지배’ 일 뿐이다.

경쟁으로 관계는 파괴되고, 차별로 노동자의 자부심은 무너지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간 존엄성이 훼손된다.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나서는 순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되고 생존의 위협에 시달린다. 이윤 논리 앞에 환경은 파괴되고, 집을 잃은 철거민들은 길거리를 떠돈다. 용역폭력도 난무하고 표현의 자유도 가로막힌다. 사회 전체가 자본의 이윤에 휘둘리는 불행한 시대에 이윤보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다.

2012년 대선, 이제 우리는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자본주의를 넘어 이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제출할 것이다. 자본의 전횡과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를 변혁하는 노동자 정치의 첫걸음이다. 지배적 질서 속에서 삭제되었던 말과 행동을 통해, 기존 질서에 대항해 싸우고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정치는 실현된다. 관람정치, 대리정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당당히 투쟁하자.

바로 내가 정치의 주체이고, 바로 내가 노동자 대통령이다. 김선아 진보신당 부대표

## 사학자본에 제대로 맞설 노동자대통령 후보 지지합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등록금'입니다. 이제 11조 원을 넘어선 사립대 적립금, 2011년 거리를 채웠던 수많은 대학생들의 촛불. 그 외침으로 모든 후보들이 '등록금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박근혜는 소득별 장학금 확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반값 등록금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문재인은 당선 직후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이후 사립대 전면 반값 등록금을, 안철수는 임기 내에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은 어떠냐구요? 제가 다니는 이화여대에는 10명 중 한 명이 빚을 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고, 적게는 370만원, 많게는 560만원의 등록금을 세 달에 한 번씩 내야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만나 협의회 하다보면 등록금 5% 인하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돈 조금만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사안 하나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학사회의 모습은 점점 비대해지는 '대학자본'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안철수도 그 누구도 사학 재단과 싸울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대학 자본을 무너뜨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설픈 등록금 구호가 아니라 명확하게 무상교육 하겠다고 외치고, 대학자본과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말입니다. '비 노동자'로써 노동자의 자식으로서 우리 대학생들도 이 자본주의사회의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이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시작을 만들 노동자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정나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송전탑의 불씨를 현장파업으로

현대차비정규직 목숨 건 첩탑농성, 회사 교섭 거부  
금속총파업 · 사회적 연대로

대법원 승소자 최병승,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사무장 천의봉 두 동지의 목숨을 건 15만 4천 볼트 송전탑 고공농성 17일차, 지부·지회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요구에 현대차자본은 “송전탑에서 내려오면 교섭하겠다”며 교섭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박현제 지회장마저 구속영장 기각으로 나온 상황에서 당연히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 지부와 지회는 분노의 치를 떨 수 밖에 없다.

교섭조차 봉쇄한 사측은 송전탑 고공농성은 생산에 아무런 타격이 없으므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사측의 허세의 이면에는 교섭을 여는 것조차 송전탑 고공농성에 밀리는 것으로 판단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 고공농성은 예고편, 본판은 현장파업

이런 사측의 허세를 응징할 수 있는 것은 현장투쟁에 달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노조가 공동투쟁으로 불법파견 특별교

섭 성사를 위한 잔업거부를 몇 차례만 하면 교섭을 열 수 있다. 무진장 쉽다.

최병승 천의봉, 두 동지 역시 송전탑 고공농성장에서 조합원들에게 “고공농성은 예고편이며 본판은 현장파업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며 “현장파업을 조직해 달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대법원 판결 조차 깡무시하며 지회 죽이기에 온갖 불법, 편법, 폭력을 일삼는 현대차자본, 3000명 신규채용으로 비정규직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자본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산라인을 세우는 강력한 현장파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동지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장파업이 원하청 연대파업으로,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발전하는 것, 역으로 금속노조 총파업이 현장파업과 원하청 연대파업을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에 모두가 동의한다. 문제는 이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현장파업을 조직하고 금속노조 총파업을 견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총파업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목숨을 걸고 첩탑에 오른 두 동지에 대한 우리의 역



할이다.

### 사회적 연대와 총파업 조직

1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8월 파업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듯이, 2차 울산포위의 날은 송전탑의 절규를 전국화 시키는데 일조했다. 3차 포위의 날은 현장파업과 총파업 조직화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사회적 연대세력은 재정후원, 지지여론 확산, 자기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투쟁을 확



산시키고 있다. 현재 사회적 연대세력은 정리해고를 당연시 하고, 비정규직을 당연시 하는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는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의 뒤통무니를 쫓기보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업호하며 총파업을 조직하는 또 다른 세력이 되어야 한다.

변혁모임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송전탑의 절규를 온몸으로 안아 현장파업과 원하청 연대파업, 금속노조 총파업, 정치파업을 조직하는데 가장 앞장 설 것이다. 정원현

## 비정규직 투쟁 상징 김소연,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1,895일 불법파견 투쟁 이끌어... “고통받는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불법파견 비정규직 첩탑 투쟁의 상징이었던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이 사실상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다. 노동자 대통령 후보는 독자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진보를 표방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로 중도 사퇴하면 진보진영의 유일한 후보로 남게 된다. ‘노동자 대통령 후보선출(추천)위원회’(위원장 조희주,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는 1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김소연 전 분회장을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단독 등록하기로 했다.

후보선출위는 지난 10월 31일 후보 추천 마감에 따라 ‘변혁모임’에서 추천한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이호동 전 발전노조 위원장과 직접 후보로 접수한 우영흠 씨(전 중국인민해방군)를 각각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이호동, 김정우 후보는 ‘변혁모임’의 추천을 고사하고 김소연 후보를 추천했으며, 우영흠 후보는 선출위의 선출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아 사퇴권고를 받았다.

후보 등록이 끝남에 따라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비위)는 2일부터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전국노동자대회에 예정된 10~11일에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노동자 대통령 선출대회를 진행한다. 노동자 대통령 선출대회와 출정식은 11일 12시 대한문 앞에서 진행한다. 선거투쟁 본부는 김소연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11일에 국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인 김소연 후보는 87년 서울 정화여상 사학비리 척결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주도하고, 97년 갑을전자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2005년 7월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를 결성한 후, 그해 10월 17일 55일 공장점거 파업으로 구속됐다. 김 후보는 2006년 8월엔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30일 단식농성, 2008년 8월엔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공장 옥상 94일 단식농성 등을 벌이면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 인물이 됐다. 2005년부터 시작된 기륭노조의 투쟁은 2010년 사측과 정규직화 합의하기까지 1,895

일이 걸렸고, 김소연 후보와 조합원들은 세 차례의 단식과 두 차례의 고공농성 등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을 벌였다. 복직이 합의된 이후 김 후보는 평조합원으로 돌아갔고, 2011년 6월엔 희망버스 기획단에 참가했다. 김 후보는 현재 2012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김소연 후보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변혁모임에서 추천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어려운 결단이었다”며 “이제는 누군가 대신해 주는 정치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모순과 고통을 받는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서 투쟁해보겠다는 의미로 봐 달라”고 노동자 대통령 후보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소연 후보는 또한 “5일(월)부터 각 지역을 돌면서 간담회와 선전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일 노동자대회 당일 최대한 많은 노동자가 모여 선출대회를 투쟁선포식으로 치러내겠다. 노동자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 정치 희망버스 등 전국순회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 투쟁일정공지

유성기업지회 흥종인 동지가 목에 밧줄을 걸고 굴다리 위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천의봉 동지가 15만 4천볼트 첩탑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에서는 쌍용차지부장 김정우 동지가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동지들! 노조 파괴,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11월 14일(수) 오후 6시 30분  
유성기업 동지들과 함께하는 ‘이현중·이해남 열사 정신계승 투쟁문화제 (충남 아산 유성지회 굴다리 농성장 앞)

■11월 17일(토)~18일(일)  
“힘내라! 비정규직” 현대차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울산)

■11월 24일(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서울)

다가오는 제2의 IMF 경제공황,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야당의 후보입니까?  
'닥치고 정권교체' 를 외치며 정리하고-비정규직 지옥을 만들었던 세력을 위해 사퇴할 후보입니까?  
쌍용차 정리하고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강정마을과 함께 싸울 후보입니까?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 노동자대통령

우리가 만듭시다!



1. 노동자대통령 선거인단에 함께합시다!

■ 일시 : 2012년 11월 2일(금)~11일(일)

■ 자격 : 노동자대통령에 동의하는 누구나

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결의대회에 모입시다!

■ 일시 : 2012년 11월 11일(일) 12:00 ■ 장소 :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준비위원회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 010-9664-9957 / nodongcamp@gmail.com